

태조 이성계가 역사 이불 덮고 누워 있는 사연

역사 이야기

여름 내내 솟총각의 머리털처럼 송송하던 역사가 늦가을엔 처녀 치마폭처럼 하늘 거린다. 관중이 없어도 치어리더가 돼 가을 하늘을 향해 꽃술을 신나게 흔든다. 꽃이 없어도 가을은 흥겹다.

건원릉 봉분을 덮고 있는 역사를 보면 낯설고 섬뜩하다. 죽어서조차 부드러운 잔디 이불을 덮지 못하고 있는 이성계의 운명을 본다. 철침처럼 송송 솟은 역사 아래 태조가 누워 있다. 잔디가 아닌 역사로 봉분을 덮은 유일한 무덤이다.

태조는 6명의 부인에게서 8남 5녀를 두었다. 그 중 향처(鄉妻)인 정비 신의왕후 한씨와 그녀의 소생 여섯 명의 아들(방우 방과 방의 방간 방원 방언), 경처(京妻)인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 그녀의 소생 두 아들(방반, 방석)이 개국 초 역사적 잔혹극의 주연·조연을 맡는다. 각본·연출 겸 주연은 태조 이성계다.

향처 한씨는 이성계와 혼인한 후 함흥 운전리에 살았다. 정장을 누비는 남편을 멀리서 후원하는 고향을 지키는 만민노리다. 둘째 부인 강씨는 젊고 총명하고 전정이 권문세가여서 태조의 입신에 큰 힘이 됐다. 그녀는 정도전 등 신진사대부 출신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무지랭이 분위기를 풀풀 풍기는 한씨는 조선 건국 전인 1391년 죽었다.

사고의 발단은 너무 일찍 일어났다. 조선 개국 한 달 뒤인 1392년 8월, 강 씨 소생인 여덟째 아들 방석이 세자로 책봉됐다. 방석의 나이 불과 11세였다. 장남 방우는 39세, 방석의 세자 책봉에 가장 큰 불만을 가진 행동파요 야심가인 정안군 방원은 26세였다. 방원은 만행인 방우를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원은 이미 태조의 눈 밖에 난 인물이다.

방원은 억울했다. 비난을 감수하며 정몽주까지 죽였다. 정몽주의 핏자국이 지금도 선죽교에 선명하게 남아 있다. 공양왕을 폐위시킨 악역에 앞장섰지만 개국 공신 책록에도 제외당하는 굴욕을 감수했다. 아버



함흥역사로 덮힌 건원릉 봉분

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는데, 대가가 없다.

“이놈아, 너는 아니야. 너는 살기가 자옥해. 용(勇)은 빼어나지만 유(柔)가 없어. 그래서 너는 아니다. 무한 용맹은 나 하나로 족하다. 너는 너무 격해. 그래서 나는 너를 버린다.”

태조의 한숨, 늙은이의 고민은 깊다. 1398년 무인년 8월 25일, 그 날 밤은 스산했다. 이른 낙엽들이 풀풀 날리는 가을밤이다. 태조는 병환중이다. 한희 소생 아들들이 시퍼렇게 버린 칼을 들고 모였다. 거친 숨을 억누르며 방원이 입을 열었다.

“형님들! 더 이상 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아버님의 마음은 이미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도전 일당이 우릴 죽일 겁니다. 선수를 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린 개밥의 도토리보다 못한 지경이 됐습니다.”

형제들은 하나같이 비장했다. 그들이 거느린 사병(私兵)들에게 업무를 분담시켰다. 신속, 정확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끝내라.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세자를 옹위하며 신권정치를 주장하는 무리들을 전광석화처럼 살해했다. 그리고 화의 근원인 세자 방석, 그의 한살 위 형인 무안대군 방원을 체포했다. 그 후 그들은 귀양 보냈다가 죽

태조 유언 어기고 동구릉에 능 조성 대신 함흥의 흥과 역사로 능을 덮어 건원릉 역사는 지금도 태조 기상 전체 갈대와 같은 대권 민심은 어디로 가나

도 늦은 나이에 태조는 분노와 증오를 한 아들 안고 고향 함흥으로 간다. 난산 훈련소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는 예비역 들쳐들 태조는 방원이 있는 곳으로는 얼굴도 돌리지 않았다.

무안차 방원이 보낸 차사들을 오는 족족 죽였다. 가서는 소식 없는 이름, 함흥차사다.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가 어찌 만백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방원(3대 태종)의 심경 또한 쓴맛의 연속이다. 부자간에 불구대전지원수이면서 어찌 국론동일, 화합을 말할 수 있겠나. 함흥에서 이를 갈고 있는 늙은 용을 궁으로 모셔올 방도는 없는가.

증오, 분노, 울화가 가슴 속에 차고 넘친 이성계를 다시 함양으로 모셔온 이는 무학대사다. 무모한 살육을 더 이상 없게 해달라는 방원의 간청으로 무학대사가 나섰다.



“태상왕 전하, 어찌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옵니까? 증오의 우물은 파내도 파내도 한이 없습니다. 미움을 거두고 백성을 생각하십시오.”

“자식 없는 대사가 한없이 부럽소. 나는 무엇을 위해 한 평생 살아온 것이요? 대답 좀 해 주시오.”

태조는 오랜 친구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다. 1402년 태조는 함양으로 돌아왔다. 귀내에 덕안전이란 법당을 짓고 염불삼매의 나날을 보내다가 1408년 5월 24일, 창덕궁 별전에서 향년 74세로 이성을 하직했다. 지금은 원치 않았던 자리, 동구릉 내 건원릉에 역사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역사는 한반도 전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높이는 1~2m이다. 줄기는 원기둥 모양이고 약간 굽다. 잎은 길이 40~70cm의 줄 모양으로, 너비 1~2cm이며 끝은 차차로

뾰족해진다. 가을 무렵에 줄기 끝에서 산방꽃차례를 이루어 작은 이삭이 뽀뽀이 달린다. 역사와 갈대를 혼동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역사는 주로 산이나 둔덕 같은 곳에 자생하고, 갈대는 강가나 뺨밭에서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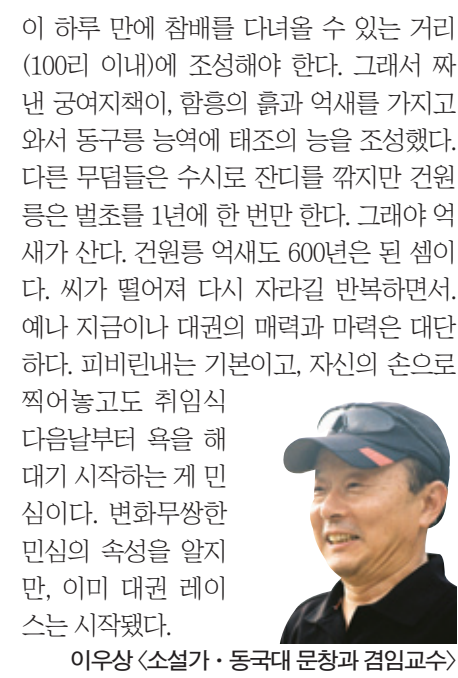
그래서 산에서 만나는 것은 거의 역사라고 보아도 틀림없다. 꽃 모양도 틀리다. 역사는 좁쌀만한 크기의 벼와 비슷한 모양이고, 갈대는 수수 문치와 비슷하다. 역사는 부드러운 질감이 풍기는 반면 갈대는 다소 거친 느낌이 든다. 키는 자라고 있는 땅의 비옥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갈대가 역사보다 50cm~1m 정도 크다.

태조는 함흥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다. 그러나 방원은 그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 선왕의 능을 도성에서 까마득하게 먼 함흥에 조성하면 참배하기에 어렵다. 왕릉은 왕

이 하루 만에 참배를 다녀올 수 있는 거리(100리 이내)에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짜낸 궁여지책이, 함흥의 흥과 역사를 가지고 와서 동구릉 능역에 태조의 능을 조성했다.

다른 무덤들은 수시로 잔디를 깔지만 건원릉은 벼초를 1년에 한 번만 한다. 그래야 역사 새가 산다. 건원릉 역사도 600년은 된 셈이다. 씨가 떨어져 다시 자라길 반복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대권의 매력과 마력은 대단하다. 피비린내는 기본이고, 자신의 손으로 찍어놓기도 취임식 다음날부터 육을 해대기 시작하는 게 민심이다. 변화무쌍한 민심의 속성을 알지만, 이미 대권 레이스는 시작했다.

이우상 <소설가·동국대 문학과 겸임교수>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힐성기도, 허공기도, 천신기도 세트
바람막이가 씌어 있는 상태
바람막이가 없는 상태
구성 : 스텐레스 받침 7개 / 크리스탈 받침 7개
P.C. 연납초 7개 / P.C. 바람막이 7개(여분증정)

우창산업 SHC 삼환중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피움 문형리 35-16

•파리만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강화사자별약속양초

한봉밀납양초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스님 및 여러 불자님들이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봉 연꽃밀납양초로 초 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삼상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① 약초 90cm	② 약초 연봉 원기둥	③ 약초 돈타레	④ 약초 연봉 원기둥	⑤ 약초 돈타레	⑥ 약초 연봉 원기둥
⑦ 약초 30cm	⑧ 약초 1호	⑨ 약초 2호	⑩ 약초 3호	⑪ 약초 4호	⑫ 약초 5호
⑬ 약초 2호 반이심경	⑭ 약초 2호 반이심경	⑮ 약초 1호 반이심경	⑯ 약초 2호 반이심경	⑰ 약초 1호 반이심경	⑱ 약초 연봉 원기둥
⑲ 약초 2호 반이심경	⑳ 약초 1호 반이심경	㉑ 약초 연봉 원기둥	㉒ 약초 연봉 원기둥	㉓ 약초 연봉 원기둥	㉔ 약초 연봉 원기둥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상 /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